

BOK 이슈노트

2023년 7월 21일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김상훈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
Tel. 02-759-4327
shkim77@bok.or.kr

남석모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
Tel. 02-759-4268
snam@bok.or.kr

이승호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
Tel. 02-759-4287
seungho.lee@bok.or.kr

최준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
Tel. 02-759-4211
joon@bok.or.kr

유지원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조사역
Tel. 02-759-4192
yooji@bok.or.kr

박동훈

한국은행 조사국
아태경제팀 과장
Tel. 02-759-5267
pdh@bok.or.kr

- ① 팬데믹 이후 대외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가운데 우리 수출은 그간 IT·중국 의존도가 높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부진하였으나 2/4분기 들어 부진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또한 이전에는 수출이 품목별, 지역별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IT품목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는 반면 자동차, 선박 등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중국·아세안 수출은 부진하지만 대미국·EU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 ② 이러한 수출 흐름에는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는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CMS))을 이용한 분석 결과, 대중 수출의 경우 중국 봉쇄조치 이후인 2022년 4~12월 대비 2023년 1~4월중 수출 감소의 65%가 주로 중국 자체의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경기적 요인에 기인하고, 35%는 중국내 점유율 하락과 관련한 경쟁력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미 수출의 경우 경쟁력이 오히려 수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③ 향후 IT 경기 부진이 완화되면서 수출이 점차 개선되고 품목별·지역별 차별화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수출구조를 감안할 때 글로벌 IT경기가 회복될 경우 IT 비중이 높은 대중국·아세안 수출의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수출은 대기수요 축소에도 불구하고 대미국·EU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④ 다만 하반기 이후 IT 경기 부진이 완화되더라도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수출이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도 최근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여부에 따라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출구조 다변화,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최창호 조사국장님, 이홍직 거시전망부장님, 임근형 국제무역팀장님, 윤용준 아태경제팀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검토 배경

1. 우리 수출은 팬데믹 특수로 IT 품목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다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고금리와 서비스로의 소비 리밸런싱의 영향으로 빠르게 둔화되었으며, 금년 2/4분기 들어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 대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던 통관수출은 금년 6월 -6.0%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수출물량도 금년 2/4분기 들어 다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출금액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개선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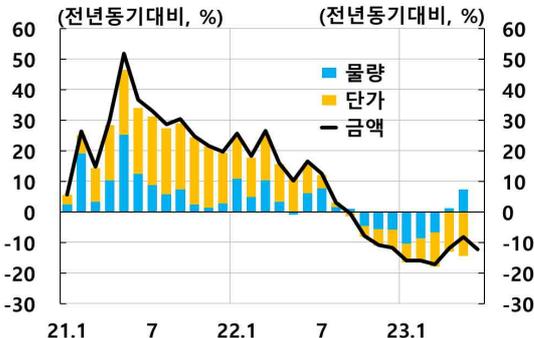
2. 최근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도 일부 품목과 지역의 경우 호조를 나타내는 등 품목별·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있어, 우리 수출의 최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23년 2/4분기 들어 수출금액이 완만하게 확대되었으며, 수출물량도 개선

[그림 1] 월별 수출 금액



[그림 2] 월별 일평균 수출 금액·물량·단가¹⁾



주: 1) 선박제외 기준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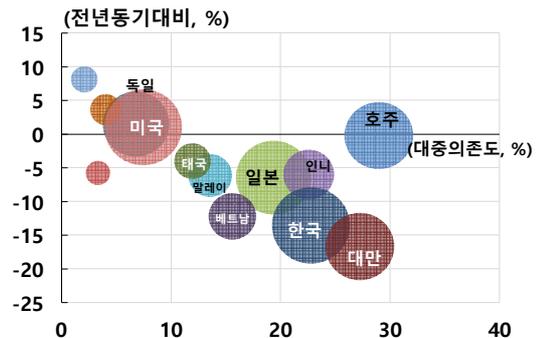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① 우리나라는 중국·IT 의존도가 높아 수출 부진의 정도가 큰 편

3. 최근의 수출 부진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위축에 따른 글로벌 공통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및 IT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에서 두드러진 모습이다. 실제로 이들 국가들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약하고 글로벌 IT경기가 위축된 데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중 및 IT 수출 비중과 최근 수출증가율간 산점도scatter plot를 보면 뚜렷한 부(-)의 선형관계를 보인다. 특히 대중국 또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출이 더욱 부진하였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베트남 등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이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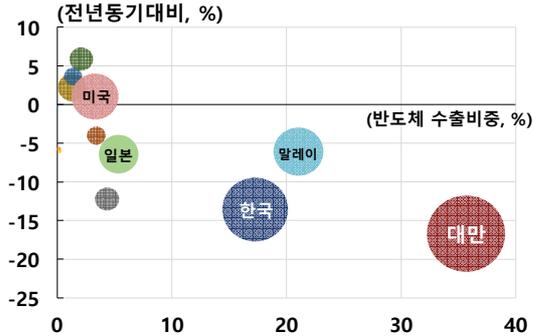
[그림 3] 대중의존도(22년)와 수출증가율¹⁾²⁾



주: 1) 23.1~4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원의 크기는 대중 수출액(달러기준)
자료: CEIC

반도체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이 부진

[그림 4] 반도체의존도(21년)와 수출증가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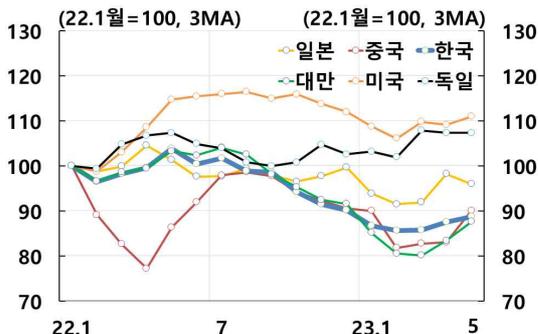


주: 1) 23.1~4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원의 크기는 반도체 수출액(달러기준)
 자료: CEIC, UNComtrade

4. 다만 2/4분기 들어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최근 글로벌 제조업 경기와 IT 업황의 추가 위축은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 수출은 반도체 전방산업의 재고 정상화, AI 서버수요 증대 등에 따른 IT 경기 부진 완화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2/4분기 들어 수출 부진 완화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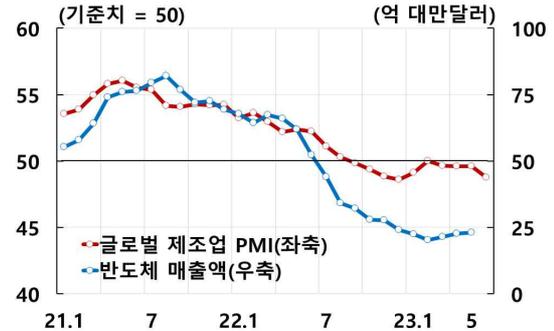
[그림 5] 주요국 수출액¹⁾



주: 1) 3개월 이동평균 기준, 2022.1월=100으로 지수화
 자료: CEIC

글로벌 제조업 PMI는 횡보하는 모습이며, 반도체 매출액은 완만하게 증가

[그림 6] 글로벌 제조업 PMI와 반도체 매출¹⁾



주: 1) 반도체 매출액은 Nanya 매출액 기준
 자료: S&P, Nanya

② 품목별 차별화 : IT 부진, 자동차·선박 양호

5.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IT품목이 부진한 반면 자동차, 선박 등 일부 비IT품목은 호조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최대 수출품목이 반도체에서 자동차(부품 포함)로 변화하였다.¹⁾ 금년 상반기중 주요 품목별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반도체(-37.4%), 디스플레이(-29.0%) 등 IT품목²⁾의 감소폭이 컸으며 비IT품목 가운데 화공품(-13.6%), 석유제품(-19.5%), 철강금속(-13.5%) 등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반면 자동차(+30.9%), 선박(+11.8%)은 호조를 지속하였고 기계류도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전체 수출 감소(-12.3%)에 대한 기여도는 -7.4%p(기여율 60%)에 달하였으며 자동차 기여도는 +3.2%p로 반도체의 부진을 완충하였다.

1) 반도체 수출이 22년 19.3%에서 최근 14.1%로 낮아진 반면, 자동차(부품 포함) 수출은 22년 11.4%에서 최근 15.4%로 높아졌다.

- ▶ 반도체 수출 비중(%) : 11년 9.2 → 15년 12.0 → 18년 21.4 → 20년 19.9 → 22년 19.3 → 2023.1~6월 14.1
- ▶ 자동차 수출 비중(%) : 11년 12.3 → 15년 13.5 → 18년 10.5 → 20년 10.9 → 22년 11.4 → 2023.1~6월 15.4

2) IT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IT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년 35.1%에서 최근 29.1%로 크게 낮아졌다.

- ▶ IT 수출 비중(%) : 11년 29.8 → 15년 34.3 → 18년 37.5 → 20년 36.9 → 22년 35.1 → 2023.1~6월 29.1

IT품목 크게 둔화되었으나 비IT품목 상대적 양호

[그림 7] IT·비IT 수출금액



자료: 관세청

반도체·화학품·석유제품 부진, 자동차·선박 호조

[표 1] 품목별 수출 증감률 및 기여도

		증감률(%)	기여도(%)
IT	반도체	<29.1> -37.4	-7.4
	무선통신기기	<2.3> -16.6	-0.4
	디스플레이	<2.5> -29.0	-0.9
	합계	<70.9> -3.3	-2.1
비IT	화학품	<16.0> -13.6	-2.2
	자동차	<15.4> 30.9	3.2
	일반기계	<10.8> -0.2	0.0
	철강금속	<8.6> -13.5	-1.2
	석유제품	<8.0> -19.5	-1.7
	선박	<3.0> 11.8	0.3
합계	<100.0> -12.3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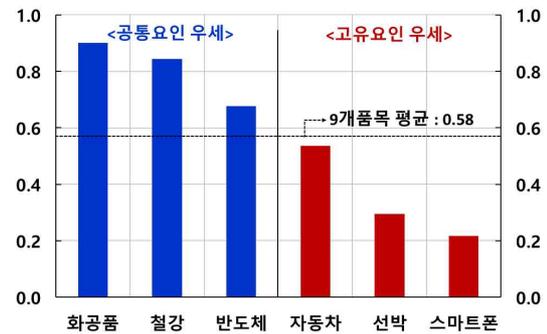
주: < > 2023.1~6월중 비중
자료: 관세청, 조사국 시산

6. 이 같은 품목별 차별화 현상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품목일수록 부진하고, 공급차질 개선, 친환경 전환 등 개별 고유요인의 영향이 큰 품목들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다. 품목별 수출에 대한 주성분 분석³⁾에 따르면 반도체, 화학품, 석유제품, 철강금속 등은 평균적으로 글로벌 경기 등 공통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반면 자동차와 선박은 품목 고유요인의 설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최근 반도체는 리오프닝에

따른 비대면 재화 특수의 소멸로 재고가 누증하고 수출단가가 급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IT품목의 경우 화학품·석유제품·철강금속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영향받으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자동차는 친환경차 수요의 추세적인 확대⁴⁾에 차량용반도체 등 부품 공급차질 개선이 더해지면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선박도 환경규제 강화 및 러우전쟁에 따른 LNG선 수요 호조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반도체는 품목 공통요인에 큰 영향 받으며 부진, 자동차는 고유요인에 의해 호조

[그림 8] 주성분 분석 결과



주: 1) 우리나라 수출 9개품목에 대한 주성분을 추출(2004~현재)하여 공통요인과 고유요인의 설명력을 시산
자료: 관세청, 자체 추정

반도체는 수출단가 급락으로 부진

[그림 9] 반도체 수출



자료: 한국은행

3)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 집합내 여러 변수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주된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론으로, 본고에서는 C.Hale(1971), K.Tian et al. (2019), 김선진·이윤정(2021) 등의 공통요인 분해 방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수출 9개 품목 증감률의 3개월 이동평균 계열을 공통요인과 고유요인으로 분해하였다.

4)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에는 0.7%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3.6%, 2021년 8.1% 등 급격히 성장하면서 최근(2023.6월)에는 15%(15.9%)를 넘어섰다.

자동차는 수요가 늘면서 물량이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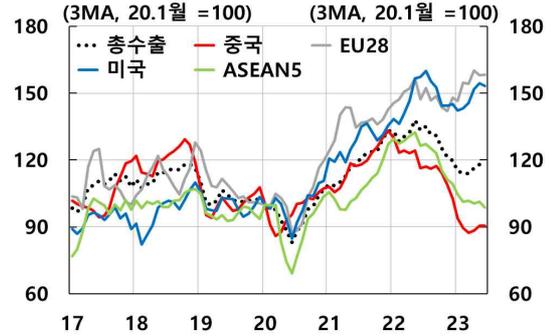
[그림 10] 자동차 수출



자료: 한국은행

지난해부터 대미국·EU와 대중국·ASEAN 수출 차별화

[그림 11] 주요 수출대상국별 수출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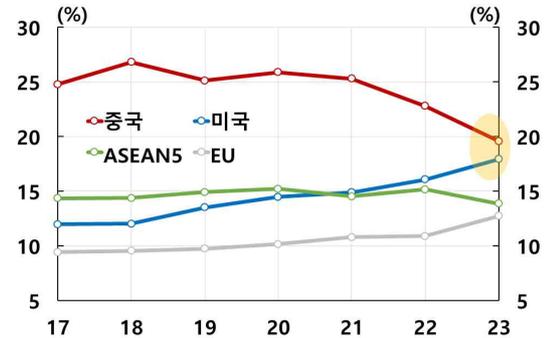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③ 지역별 차별화 : 대중국·아세안 부진, 대미국·EU·중동 양호

7. 지역별로 보면 대중국·아세안 수출이 부진한 반면 대미국·EU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중국과 미국간 수출비중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은 대체로 밀접하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이후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보면 대중국(-26.0%), ASEAN5(-21.4%), 일본(-10.7%) 등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대미국(+0.3%), EU(+4.9%), 중동(+14.0%)은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이러한 흐름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미국 수출 비중이 금년 상반기중 2002년(20.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7.9%로 확대되어 대중국(19.6%)과의 격차가 1.7%p까지 좁혀졌다.

대중국과 대미국 수출 비중간 격차가 크게 축소

[그림 12] 주요 수출대상국별 수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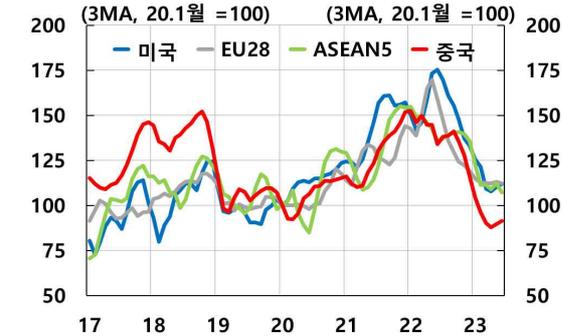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8. 최근 수출이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지역별 수출품목 구조의 차이를 상당 부분 반영한다. 최근 글로벌 IT경기의 위축으로 거의 모든 지역으로의 IT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있는데 2022년중 대중국과 아세안 수출내 IT비중은 각각 51.0%, 46.3%로 대미국(28.2%)과 EU(21.8%)에서보다 크게 높다. 반대로 글로벌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미국과 EU내 동 수출 비중이 각각 27.6%, 19.5%로, 대중국(1.0%) 및 아세안(2.7%)에서의 비중을 큰 폭 상회한다. 즉, 대중국·아세안 수출은 IT경기에, 대미국·EU수출은 최근 자동차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이다.

거의 모든 지역으로의 IT품목 수출이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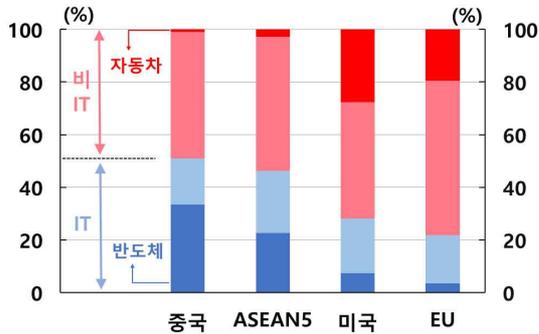
[그림 13] 주요 수출대상국별 IT수출



자료: 관세청

대중국·ASEAN 수출은 IT비중 높고, 대미국·EU 수출은 자동차가 높은 비중

[그림 14] 주요 수출지역별 품목구조¹⁾



주: 1) 2022년 기준
자료: 관세청

9. 국별 경기 및 산업정책의 차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각 시장내 경쟁력 변화와 수출 다변화 노력도 수출의 지역별 차별화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제조업의 높은 재고수준, 부동산투자 위축⁵⁾과 같은 경기적 요인 외에 자국 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요인도 가세하여 IT품목뿐 아니라 비IT품목도 전반적으로 수입수요가 부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중간 경쟁력을 세계시장 점유율, 수출품 비교우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2010년과 21년간 양국간 격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아세안 수출은 IT와 비IT 모두 부진

[표 2] 대중국·아세안 수출

(%)	대중국	대아세안
▶ IT	-35.0	-21.9
▶ 비IT	-16.7	-21.1
- 화공품	-16.2	-25.9
- 자동차	-1.2	-5.3
- 일반기계	-22.1	-2.9
- 철강금속	-24.4	-22.8
- 석유제품	-10.4	-34.0
- 선 박	-2.1	-70.1

주: 1) 2023.1~6월중, 전년동기대비
자료: 관세청

중국의 부동산 투자 부진이 아시아 주요국 대중 수출과 밀접히 연관

[표 3] 중국 부문별 경기와 대중 수출간 상관관계¹⁾

	부동산투자	설비투자	소매판매
▶ 한국	0.69	0.47	0.23
▶ 인도	0.60	0.33	0.27
▶ 말레이	0.52	0.21	0.17
▶ 태국	0.66	0.39	0.26
▶ 대만	0.54	0.21	0.14
▶ 일본	0.65	0.31	0.24
▶ 베트남	0.44	0.23	0.15

주: 1) 분석기간은 2004.1월 ~ 2023.5월
자료: 자체 시산

한·중간 경쟁력 격차는 지난 10여년간 빠르게 축소

[그림 15] 한·중간 경쟁력 격차



자료: 자체 시산

5)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설비투자, 소매판매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표 3).

반면 미국은 견조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경기 둔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및 반도체 과학법(Chips & Science Act) 시행에 따라 공장건설도 급증하면서 휴대폰, 기계류 등의 수입수요가 양호한 상황이다. EU 및 중동의 경우 현지 공장건설(배터리공장 등) 및 인프라투자 확대(네옴시티 등) 등으로 기계류, 화공품, 석유제품 등 비IT품목 수입수요가 확대되고 있다.6) 아울러 미국, EU, 중동 등의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선호도가 제고된 것도 이들 지역에 대한 우리 수출의 확대 요인으로 평가된다.7)

대미국·EU 수출은 다수의 비IT 품목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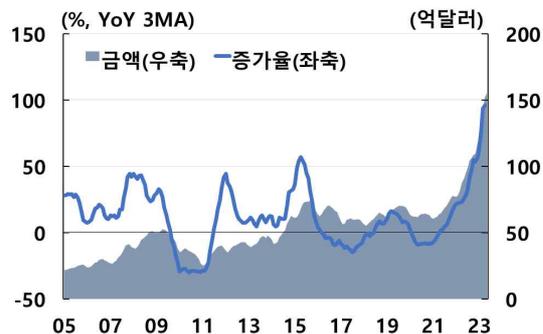
[표 4] 대미국·EU 수출

(%)	대미국	대EU
▶ 비IT	11.0	13.8
- 화공품	11.7	15.2
- 자동차	37.7	35.6
- 일반기계	5.3	10.7
- 철강금속	-18.3	-3.0
- 석유제품	-9.3	36.5
- 선박	-9.8	-26.8

주: 1) 2023.1~6월중, 전년동기대비
자료: 관세청

미국 현지 공장건설 급증으로 대미 기계류 수출 확대

[그림 16] 미국 공장건설 투자액 및 증가율



자료: 미국상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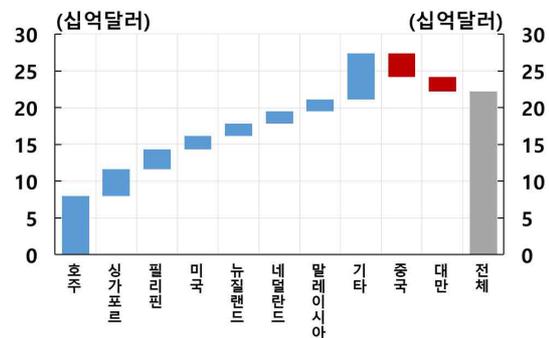
6) 미국, EU 등 주요국 산업정책은 향후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산업의 자국내 공장이전 유도 등을 통해 핵심산업에 대한 자금률을 높이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7)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6월 수출입 동향”을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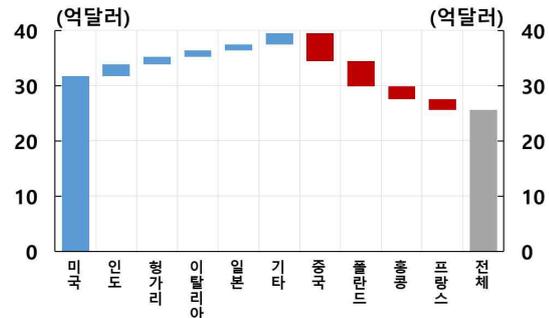
10. 수출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 이외의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 석유화학·배터리는 중국의 자급력이 강화되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이를 대체하여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났다. 반도체제조장비의 경우도 미·중 갈등 등으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반면 싱가포르, 대만, 미국 등으로의 수출은 확대되었다. 미·중 갈등 지속, 중국의 성장모멘텀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수출 다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석유화학·배터리는 중국 대체시장의 수출이 확대

[그림 17] 석유화학 수출증감액¹⁾



[그림 18] 배터리 수출증감액¹⁾



주: 1) 2020~22년 수출 증감액 기준, 청색은 증가를, 적색은 감소를 의미
자료: 관세청, 자체 시산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 다변화

[그림 19]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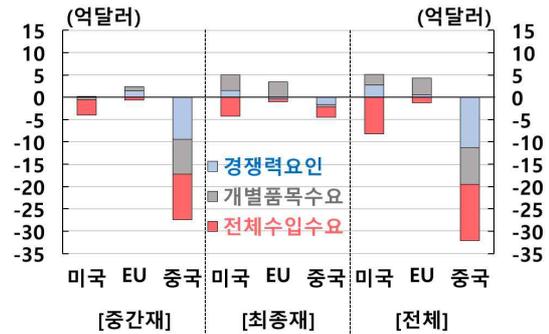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11. 이러한 지역별 수출 차별화의 원인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불변시장점유율⁸⁾ Constant Market Share(CMS) 분석⁸⁾을 수행한 결과, 최근 수출의 지역별 차별화에는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⁹⁾ 대중국 수출의 경우 분석 대상기간 중 수출 감소에서 중국내 점유율 하락과 관련한 경쟁력 요인이 35.3%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자체의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경기요인이 64.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미·EU 수출의 경우에는 수요 요인이 소폭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경쟁력 요인은 수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양자간 요인별 차이는 중간재와 최종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요인이 중국에서는 감소요인으로, 미국에서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은 팬데믹 이전 시기부터 관찰된다(BOX2 참조).

대중수출에는 경쟁력 요인과 경기요인 모두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대미·EU 수출에서는 경쟁력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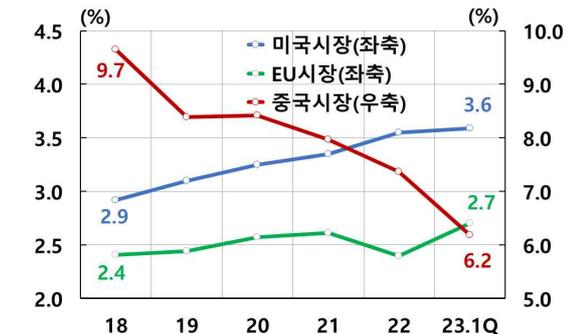
[그림 20] 대미·EU·중 수출 변동 요인 분해



주: 1) 22년 4~12월 기간 대미 23년 1~4월중 수출에 대한 불변시장점유율 분해
자료: CEIC, 자체 시산

우리나라의 미국과 EU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중국시장 점유율은 하락

[그림 21] 미국·중국시장에서의 한국점유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8) 본문의 분석시 기준 시점을 최근(2023.1~4월, 기준시점)으로, 비교 시점은 지역별 수출 차별화가 본격화된 2022.4~12월 중으로 설정하였다.

9) 과거 10년간 연도별 대중 및 대미 수출에 대한 CMS 분석을 실시한 결과(BOX2 참조), 전체 수입수요 요인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전체 수출의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경쟁력 요인은 중국에서는 감소요인으로 미국에서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전체 수입수요의 단기적 변동은 경기적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중장기적 변화는 경쟁력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BOX 1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방법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에서 경쟁력요인은 수입시장(j) 내 수출국(i) 점유율 변동, 개별품목 수요 요인은 분석대상국 수출구조의 상대국 수입구조 변화 부합 정도에 따른 수출규모 증감을, 전체 수입 수요 요인은 수입국의 전체 수입규모 증감에 따른 수출규모 변화를 측정한다.

$$\begin{aligned}
 & \sum (X_{g,t_1} - X_{g,t_0}) \\
 &= \sum (M_{g,t_1} \theta_{g,t_1} - M_{g,t_0} \theta_{g,t_0}) \\
 &= \sum M_{g,t_1} (\theta_{g,t_1} - \theta_{g,t_0}) + \sum \theta_{g,t_0} (M_{g,t_1} - M_{g,t_0}) \\
 &= \sum M_{g,t_1} (\theta_{g,t_1} - \theta_{g,t_0}) + \sum \theta_{g,t_0} (M_{t_1} \alpha_{g,t_1} - M_{t_0} \alpha_{g,t_0}) \\
 &= \sum M_{g,t_1} (\theta_{g,t_1} - \theta_{g,t_0}) + \sum \theta_{g,t_0} [M_{t_1} (\alpha_{g,t_1} - \alpha_{g,t_0}) + \alpha_{g,t_0} (M_{t_1} - M_{t_0})] \\
 &= \underbrace{\sum M_{g,t_1} (\theta_{g,t_1} - \theta_{g,t_0})}_q + \underbrace{\sum \theta_{jg,t_0} M_{t_1} (\alpha_{g,t_1} - \alpha_{g,t_0})}_q + \underbrace{\sum \theta_{g,t_0} \alpha_{g,t_0} (M_{t_1} - M_{t_0})}_q \\
 & \qquad \qquad \qquad \text{(경쟁력 요인)} \qquad \text{(개별품목 수요 요인)} \qquad \text{(전체 수입수요 요인)}
 \end{aligned}$$

단, $X_{g,t}$: t 기 i 국의 g 품목 대 j 국 수출액 $M_{g,t}$: t 기 j 국의 g 품목 대 i 국 수입액 M_t : t 기 j 국의 총수입액
 $\theta_{g,t}$: t 기 i 국의 g 품목 j 국 수입시장 점유율 $\alpha_{g,t}$: j 국 총수입중 g 품목 비중

결론 및 시사점

12. 최근 우리 수출 흐름에는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수출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약하고 글로벌 IT 경기가 위축된 데 따른 영향으로 중국 및 IT 의존도가 높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글로벌 경기에 대한 품목별 민감도 차이, 상이한 국별 경기 및 산업정책과 함께 우리 기업의 각 시장내 경쟁력 변화 등으로 품목별·지역별로 차별화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13. 향후 IT 경기 부진이 완화되면서 수출이 점차 개선되고 품목별·지역별 차별화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수출구조를 감안할 때 글로벌 IT 경기가 회복될 경우 IT 비중이 높은 대중국·아세안 수출의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수출은 대기수요 축소에도 불구하고 대미국·EU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4. 다만 하반기 이후 IT 경기 부진이 완화되더라도 국별 산업구조 및 경쟁력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이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여부에 따라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15. 이 같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기업은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출 다변화 유인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중국은 향후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간재에 편중된 대중 수출구조를 최종재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EU의 경우 역내 공급망 강화 움직임을 감안하여 기술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BOX 2 대중 및 대미 수출 증감액의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결과

과거 10년간 대중 및 대미 수출 증감액을 요인별로 구분하기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해 본 결과, 중국 및 미국 시장 모두 전체수입 수요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경우 10년간 총 수출 증가는 전체수입 수요요인 증가에 기인하며 개별품목 수요 및 경쟁력 요인은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체수입 수요요인도 크게 증가한 데다 경쟁력 요인도 수출 증가에 상당폭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연도별¹⁾ 대중 및 대미 수출 증감액의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결과

(억달러)

연도	대중수출				대미수출			
	(경쟁력)	(개별품목 수요)	(전체수입 수요)	증감액	(경쟁력)	(개별품목 수요)	(전체수입 수요)	증감액
2013	3	-2	8	10	3	0	-0	3
2014	0	-1	1	0	4	1	2	7
2015	4	7	-17	-7	-1	3	-3	-0
2016	-5	1	-6	-11	-1	-0	-2	-3
2017	0	-2	17	15	-2	0	4	2
2018	-1	-1	19	17	-1	-1	5	3
2019	-15	-3	-3	-22	2	-0	-1	1
2020	-7	4	-1	-3	7	-2	-4	1
2021	0	-8	33	25	5	-0	13	18
2022	-1	-6	2	-6	-1	1	12	11
합 계	-23	-10	51	18	15	2	26	42

주: 1) 전년 대비 월평균 수출액 증감을 분해
 자료: 중국해관총서, 관세청, 자체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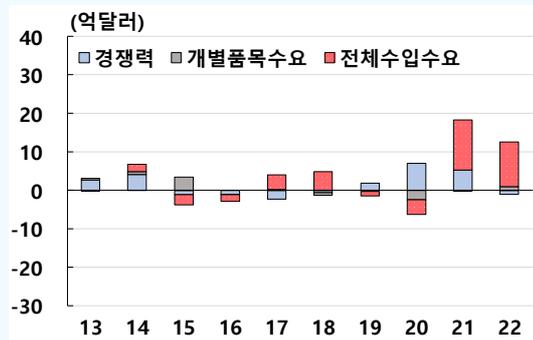
대중 및 대미 수출 모두 전체 수입수요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요인은 줄어든 반면,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요인은 개선된 모습

[그림 22] 대중수출 CMS 분석 결과



자료: 중국 해관총서, 관세청, 자체 시산

[그림 23] 대미수출 CMS 분석 결과



자료: 관세청, 자체 시산

참고문헌

- 김선진·이윤정 (2021), "대중 수출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제2021-28호
- 박경훈 외 (2023),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제2023-4호
- 이영재·이승학 (2022), "무역수지의 귀착분석: 부가가치와 귀속소득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제2022-11호, 2022.11.30.
- 이현창·김보경 (2017), "시장점유율 분해를 통한 수출경쟁력 평가",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제2017-8호, 2017.8.31.
- 정혜선·강성은 (2021), "최근 주요국 수입구조 변화와 우리 수출경쟁력 분석",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제2021-30호, 2023.6.5.
- 조의윤 (2023), "대중국 수출부진과 수출시장 다변화 추이 분석",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제2023-7호, 2021.9.17.
- Carlo Milana (1988), "Constant-market-shares analysis and index number theor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ume 4, Issue 4, 1988, Pages 453-478
- Floris van Ruth(2009), "A conditions monitor for exports", Statistics Netherlands Discussion Paper(09007)
- Hale, C. M., "Factor Analysis, Industrial Linkages, and Industrial Structure", Review of Regional Studies, 1.1, 19~35, 1971
- Huo, D., "Impact of country-level factors on export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industry from emerging markets", Competitiveness Review, Vol. 24 No. 5, pp. 393-413, 2014
- Jan Fagerberg & Gunnar Sollie (1987), "The method of constant market shares analysis reconsidered", Working Papers Archives 1987001, Centre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Culture, University of Oslo.
- Tian, K., Dietzenbacher, E., Jong-A-Pin, R., "Measuring industrial upgrading: applying factor analysis in a global value chain framework", Economic Systems Research, 31.4, 642~664, 2019
-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Boston Consulting Group (2021), "Strengthening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in and Uncertain Era", April 2021, SIA-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2023-23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538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